

“시장 가장 잘 아는 기업 중점지원 ‘퍼스트 펭귄’ 처럼 세계 선도해야”

구윤철 부총리, 성장전략 회의

“정부, 기업과 소통 막힌부분 뚫고
확실 성과 날 때까지 지원할 것”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그래핀·K-식품 등 5개 우선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세계 1위 제품만이 시장을 지배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에 정책 지원의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불링에서 10개의 핀 중 정중앙에 놓인 5번 핀을 가리킨다. 특정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프런티어 정신(개척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바다에 앞장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 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확실한 성과가 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며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고, 그래핀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K-식품에 대해선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9월 중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아이폰 17’ 소개하는 팀 쿡 CEO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아이폰 17 프로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17 시리즈와 아이폰 에어,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에어팟3 프로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한국은 1차 출시국으로 오는 12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뉴시스

가계대출 증가액 4.7조… 전월의 ‘2배’

금융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
계절적 요인, 주택가격 상승 영향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직후인 7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원까지 줄었는데, 계절적 요인과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늘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기록했던 2조3000억원보다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대출 증가폭이 9000억원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이 3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제2금융권 대출 증가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월(2조8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

은 2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정책성 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했고, 저축은행의 대출도 3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까지 가파르게 늘었다. 보험과 여신금융전문사는 전월과 비슷한 4000억원 감소와 2000억원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담대에 반영됐다”면서 “휴가철 자금 수요 등에 따라 신용대출 감소 폭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은 통상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는 시기지만, 전년 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 가격 상승을 비롯한 가계부채 불안요인이 여전한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청년취업자 21만명 ↓… 16개월째 내리막

통계청, 8월 고용동향

15~29세 취업자 357.1만명
60대 이상은 40.1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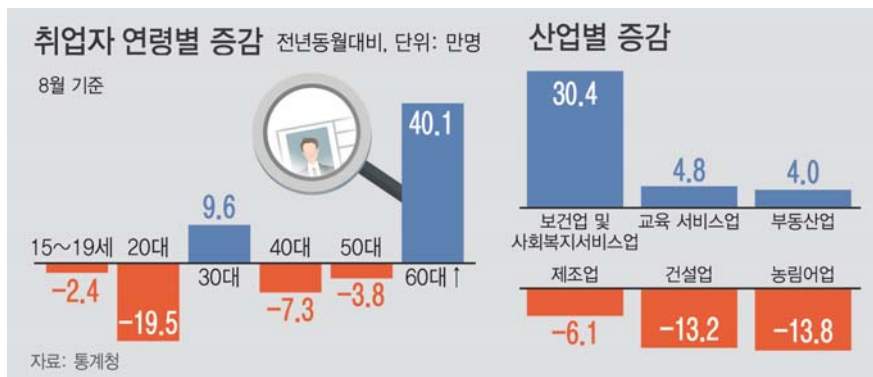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률 또한 16개월 연속 후퇴를 기록했다. 또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증가폭은 그러나 지난 5월 20만 선을 넘어선 뒤 3개월째 10만 명대로 둔화한 상태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5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 취업자 감소 폭을 훌쩍 넘는 수치다. 반면 60세 이상과 30대는 각각 40만1000명, 9만6000명 증가했다.

또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5.1%로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 강화되고 수시 채용 폭



으로 가고 있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 비중 높은 산업군에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계속 청년층 고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농림어업의 경우에도 7개월째 감소다. 지난 6월 14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내수부진 탓에 지난달 높은 감소세

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 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 감소도 지속돼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0.2%p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7만3000명(2.9%) 늘어났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에 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카뱅, 특례채무조정 받은 청년 81% 달해

>> 1면 ‘카뱅 전세사기 대출…’서 계속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

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는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